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. 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호주, 나치 및 테러단체 상징 공개 전시 금지
 - 1.8 언론은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-가자 전쟁이후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나치경례 및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되었다고 보도
 - ※ 同법안은 테러조직 등과 관련된 상징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, 학문적·교육적·예술적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가 존재

미주

- 美, 9개 州에서 '폭탄테러' 협박 이메일 접수
 - 1.4 언론은 미국 9개 州의 정부 청사와 의회 의사당에 “폭탄을 설치해 폭발할 것”이라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접수되어 해당 건물 폐쇄 조치 및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
 - ※ 수사결과 허위 테러신고로 무장경찰 진입을 벌이도록 하는 ‘스왑팅(Swatting)’ 범죄로 보고 있으며, 사법부는 이를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판단
- 美 국방부, 이라크內 연합군 병력 철수 미정 발표
 - 1.9 美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라크 총리실의 美軍 철수 발표*와 관련하여 “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”고 언급하며, 임무인 이라크內 ISIS 격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발표
 - * 1.5 이라크는 美軍에 의해 현지 보안요원과 민병대 지도자들이 사망하자 미국 주도 연합軍의 자국內 주둔 철수를 발표

아·태평양

- ISIS, '카불 버스 폭탄 테러' 배후 자처
 - 1.7 외신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가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시아파 지역에서 발생한 버스 폭발사고(2명 사망·14명 부상)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
 - ※ '21.8월 탈레반이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간에서 폭탄테러와 자살 공격의 횡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나, ISIS를 포함한 다수의 무장단체가 여전히 활동 중

중 동

- 이란,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로 103명 사망
 - 1.4 언론은 3일 이란 혁명수비대 「솔레이마니」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물 가방이 폭발하여 10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란이 이를 '테러'로 규정하고 배후를 이스라엘로 지목했다고 보도
 - ※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을 이끌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'20.1.3 이라크 바드다그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폭격으로 사망
- 헤즈볼라, 이스라엘 북부 공군기지에 미사일 62발 공습
 - 1.6 레바논 남부의 親이란 무장세력 「헤즈볼라」가 이스라엘 북부 메론의 공군기지를 미사일 62발로 타격했으며, 이는 하마스 전체 서열 3위로 평가받는 「알아루리」 암살사건*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격이라고 발표
 - * 1.2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무실을 공습해 「알아루리」 정치국 부국장을 포함 6명이 사망
- UAE, '비밀조직 결사 혐의'로 84명 대규모 재판
 - 1.7 언론은 「하마드 알삼시」 아랍에미리트(UAE) 법무장관이 '국가 영토에서 폭력·테러 행위를 범할 목적으로 비밀 조직을 결사한 혐의'로 피고인 8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
 - ※ 법무부는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'무슬림형제단'의 일원이라고 부언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 정부군, 알-샤바브 叛軍 76명 사살
 - 1.8 언론은 지난 6일 소말리아 정부군이 중부 무두그 지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군과 함께 알-샤바브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쳐 76명의 알-샤바브 叛軍을 사살했다고 보도
 - ※ 「이브라힘 셰이크 무히딘」 정부군 사령관은 이번에 전사한 叛軍 가운데 알-샤바브의 지휘관들도 포함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부언

프랑스, 파리 유명 잡지사 총기난사 테러

- '15.1.7 파리 소재 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(Charlie Hebdo)*' 本社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 2명이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, 12명 사망(편집장 등 직원 10명 · 경찰 2명) · 10명 부상
 - * 同 잡지는 정치·종교·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·공격적인 언론社로서, '06년부터 무함마드 비하 만평 등을 게재하면서 이슬람권의 큰 저항을 받음('69년 창간)
 - 1.9 테러범 2명은 파리 근교에서 여성 1명을 인질로 잡고 軍·警과 대치하던 중 경찰특공대에 의해 사살
- 1.14 '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'가 '축복받은 파리 전투에 대한 메시지 영상을 공개, 同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프랑스 정부는 물론이고 「앙겔라 메르켈」 獨 총리와 「버락 오바마」 美 대통령 등은 同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비난성명을 발표
- 한편, 同 사건 이후 “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”는 진영과 “종교를 모독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”는 진영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

<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 >

- (영문 / 별칭) Al-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/ 예멘 알카에다
- (결성/목표) '09.1 '예멘 알카에다'가 '사우디 알카에다'와 통합하여 아라비아반도와 중동內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), 미국('10.1), 캐나다('10.12), 호주('10.11), 사우디('13.12), UAE('15.11)
- (활동지역 / 연계세력)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 / 알카에다, 알샤바브
- (수법) 예멘 軍·警 대상 공격 및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(프린터, 속옷, 신체內 은닉 등)을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, 항공기 폭탄테러 등
 - ※ '19.12 미국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 총기 테러(사망 3명, 부상 8명) 배후 자처
- (특징) 反서방 글로벌 테러에 가장 적극적·공세적이며, 알카에다 지부 조직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평가